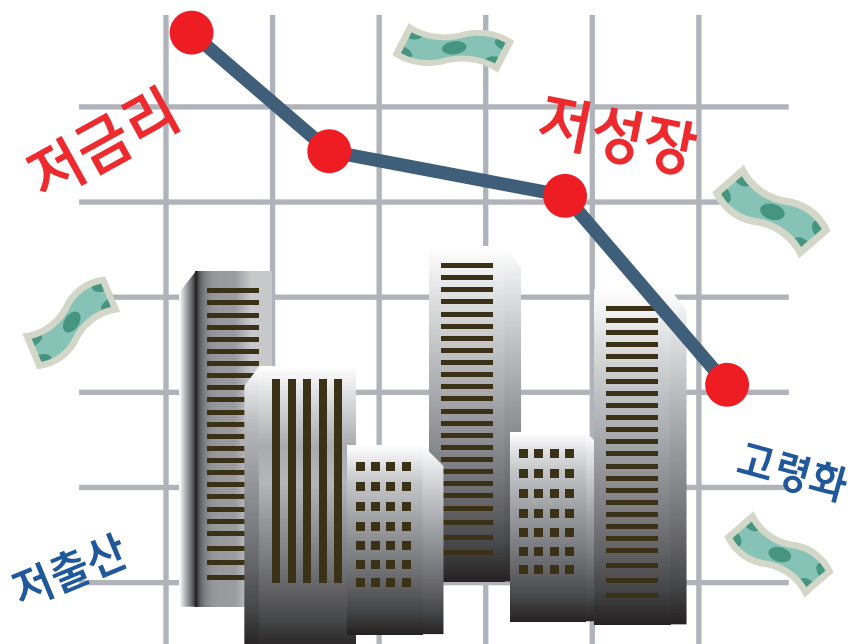


Inside Quant: Issue Report

개미의 꿈

퀀트/기술적분석/ETF
이창환
3787-2278
ch.lee@hmsec.com



개미의 꿈

Quantitative Analyst

이창환

02) 3787-2278

ch.lee@hmsec.com

Key Idea 1. 코로나19, 동학개미운동의 서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동학개미운동 시작. 연초 이후 지속된 대규모 순매수에도 증시 예탁금 규모가 43조원 수준이고, M1/M2 비율 증가로 개인 투자자의 추가 매수 여력은 아직도 충분함.

Key Idea 2. 위기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수면위로 드러낸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등 과거 위기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 이는 안정적 수입과 노후자금 확보, 그리로 부동산 투자 열풍 등 재테크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냄

Key Idea 3. 동학개미운동, 주식이 매력적인 이유

4대 자금 준비의 어려움, 부동산 열풍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추가 차입을 통한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짐. 개인 순매수 상위주를 분석한 결과, 반등국면에서의 자본이익과 장기적 관점에서 배당 등 안정적인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장기투자자의 모습이 확인됨. 저금리 시대에서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배당수익률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대안. 사회,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미래 가계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역시 긍정적 요소

Key Idea 4. 이익 성장성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배당성장주 및 중위험·중수익 인컴(Income) ETF 제안

이번 동학개미운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일확천금이 아닌 사회 구조의 변화에 맞춘 적절한 주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이익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배당성장주로 삼성전자, KT&G, 에스원, 제일기획 등 11종목 제안. 중위험·중수익으로 장기투자에 적합한 미국과 한국에 상장된 인컴(Income) ETF 15종목 제안.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로 가격이 매력적인 IG(투자등급) 회사채, 고배당주, REITs 및 인프라 투자,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안전자산인 금 ETF로 구성

이익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배당성장주 및 중위험·중수익 인컴(Income) ETF 제안

투자유망주			미국상장 인컴 ETF		한국상장 인컴 ETF	
종목코드	종목명	2020년 배당수익률 (%)	투자목적	티커	투자목적	티커
A005930	삼성전자	3.2	고배당	VYM	고배당	161510
A033780	KT&G	5.9	고배당	SPHD	고배당	279530
A012750	에스원	3.0	리츠	SCHH	리츠	182480
A030000	제일기획	5.1	리츠	REET	인프라	329200
A056190	에스에프에이	3.8	인프라	IGF	회사채_IG	136340
A214320	이노션	3.4	회사채_IG	LQD	금	132030
A108320	실리콘웍스	2.8	회사채_IG	VCSH		
A095610	테스	2.0	회사채_IG	VCIT		
A086390	유니테스트	3.0	금	IAU		
A092730	네오팜	3.2				
A192440	슈피겐코리아	4.2				

자료: 현대차증권

1. 코로나19, 동학개미운동의 서막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증시를 위협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 DNA의 변화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 국내 증시 또한 연초대비 -33.7% 하락하면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인 1,457.64pt를 기록했다. 과거 유행병인 SARS(2003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우려를 보여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등과 비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위기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시장 DNA 변화를 경험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리먼브라더스 등 Big 4 투자은행이 미국 증시를 주도했으나,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애플 등 IT섹터가 발돋움했고, 이후 FAANG의 시대에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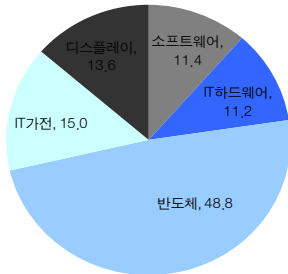
한국 또한 금융위기 이후 IT산업 내 체제변화를 경험했는데, 반도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섹터가 부각됐다. 이처럼 역사 속의 큰 위기는 시장 DNA의 변화를 촉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림1>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변화: 금융 → Smart → FA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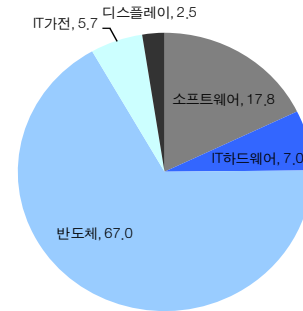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그림2〉 2007년 말 한국 IT섹터 내 업종별 시총 비중



자료: Wisefn, 현대차증권

〈그림3〉 현재 한국 IT섹터 내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



자료: Wisefn, 현대차증권

코로나19로 촉발된 동학개미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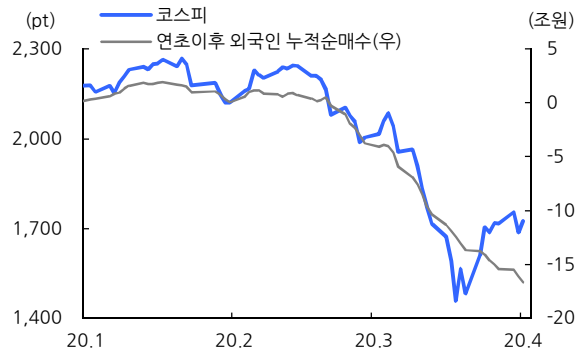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생길 변화가 비단 산업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동학개미운동’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상황을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것이다.

동학농민운동은 조선후기 고종 31년인 1894년에 있었던 반봉건·반외세 운동이다. 코로나19로 시장의 공포심리가 팽배해졌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행보가 동학농민운동과 어딘가 닮아 보였던 것 같다.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주체는 크게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주요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다. 지역별로 자산배분이 이뤄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등 지수의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도 외국인이 무려 16조원 넘게 코스피에 대해 순매도 하면서 증시가 가파르게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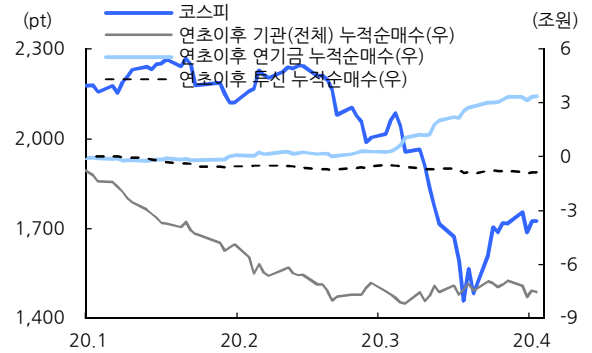
반면, 동기간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에 대해 22조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순매수를 지속했다. 과거 증시 하락국면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했던 적이 있다. 증시 바닥국면에서 저렴하게 매수하자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증시 바닥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지 못했고, 자금력의 한계로 반등국면까지 버티지 못하면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개인이 순매도 들어서면서 증시가 반등국면에 완전히 접어들었다.

<그림4> 연초이후 외국인 누적순매수_코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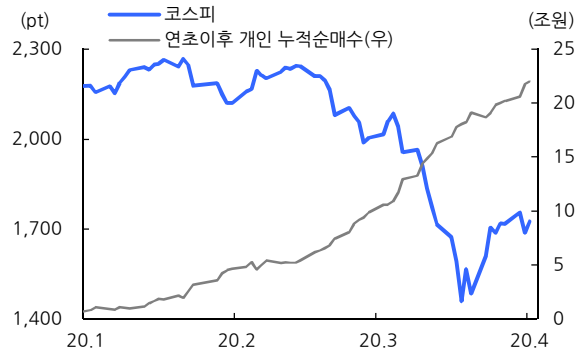
자료: Wifefn, 현대차증권

<그림5> 연초이후 기관 누적순매수_코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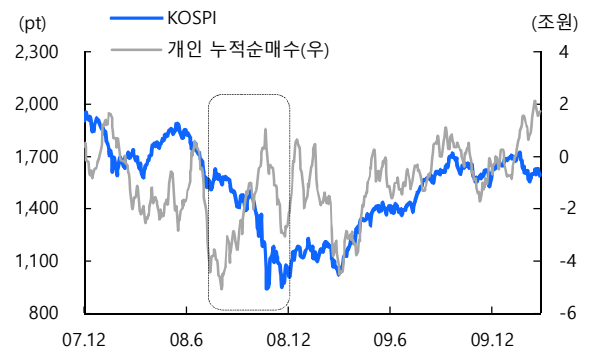
자료: Wifefn, 현대차증권

<그림6> 연초이후 개인 누적순매수_코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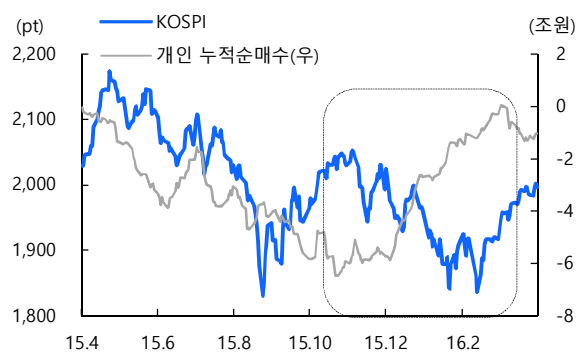
자료: Wifefn, 현대차증권

<그림7> 개인 누적순매수_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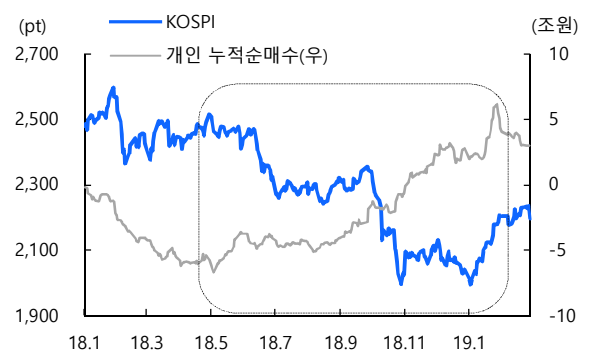
자료: Wifefn, 현대차증권

<그림8> 개인 누적순매수_2015년 연준 금리인상



자료: Wifefn, 현대차증권

<그림9> 개인 누적순매수_2018년 미·중 무역분쟁



자료: Wifefn, 현대차증권

동학개미운동은 실패로 끝날 것인가? 심상치 않은 개미의 역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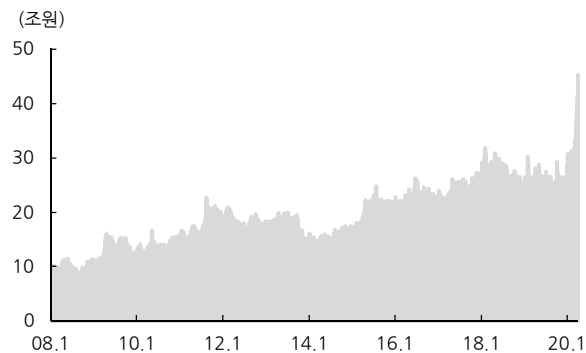
과거의 사례처럼 동학개미운동은 실패로 끝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부른 미래 예측일 수 있겠지만,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보여준 행보가 심상치 않다.

우선 연초 이후 지속된 대규모 순매수에도 개인 투자자의 추가 매수 여력은 충분하다. 추가 매수 여력을 나타내는 증시 예탁금 규모가 43조원에 달한다. 또한 M1 통화의 증가로 M1/M2 비율 또한 32%를 넘어섰다. M1(협의통화)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MMF 포함)의 합계이고, M2(광의통화)는 M1과 만기 2년 미만 금융상품(예적금, 시장형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등)의 합계다. M1/M2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추가 매수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목적 자체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증시 바닥국면에서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함으로써 향후 반등국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아닌 전염병에 의한 증시하락이기 때문에 빠른 반등을 기대하는 심리가 이전보다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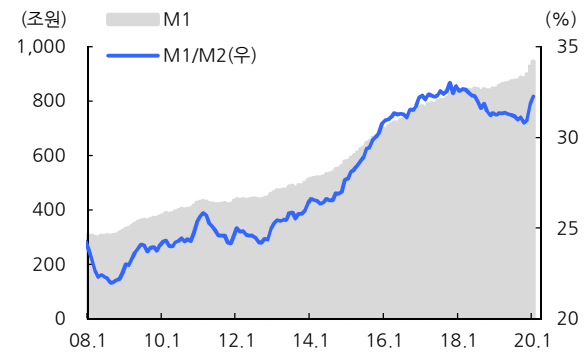
그러나, 필자는 소위 말하는 ‘한탕주의’가 전부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동학개미운동이 사회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미래 가계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주식이 위험자산이지만 현 상황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대안이 될 가능성 또한 함께 얘기하고자 한다.

<그림10> 투자자예탁금(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



자료: 금융투자협회, 현대차증권

<그림11> M1/M2 비율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II. 위기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수면위로 드러낸다.

금융위기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수면위로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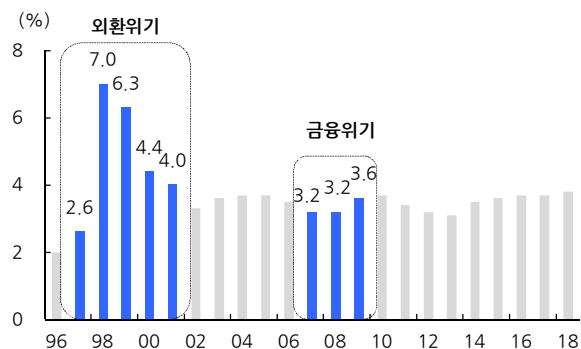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동학개미운동’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식 접근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이익 등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근거에는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사회구조에 있다.

글로벌 증시는 그 동안 다양한 위기를 겪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2007년 서브프라임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2015년 그리스 디폴트 등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양적완화(QE)로 대변되는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글로벌 경제와 증시는 다시 안정을 찾았으나, 사회 구조의 변화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우선 가계 소득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위기 때마다 관련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실업자가 증가했다. 당장 수입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고, 막막한 미래로 자살률이 증가했다. 둘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실시했던 통화정책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여러 위기를 극복했지만,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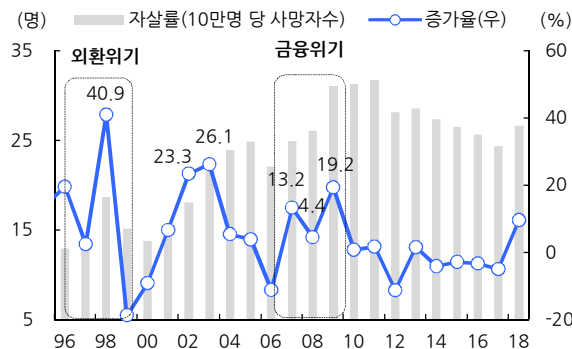
경제적인 변화 외에도 인구 구조의 변화 또한 가시화됐다.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했는데, 매년 늘어나는 최소생활비와 자녀 교육비가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고령사회(aged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 진입했다.

<그림12>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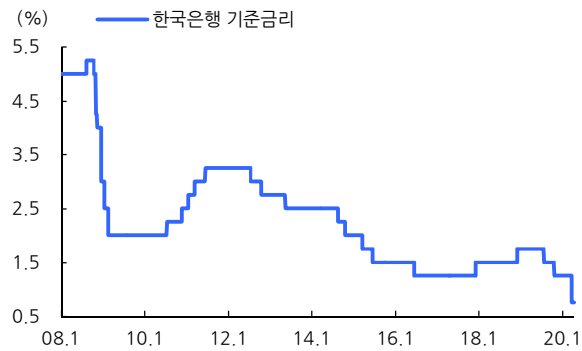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13> 자살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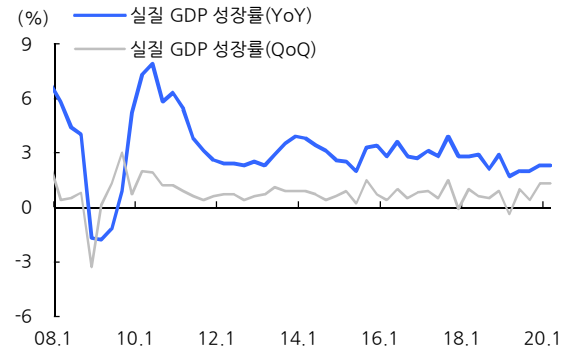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현대차증권

<그림14>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저금리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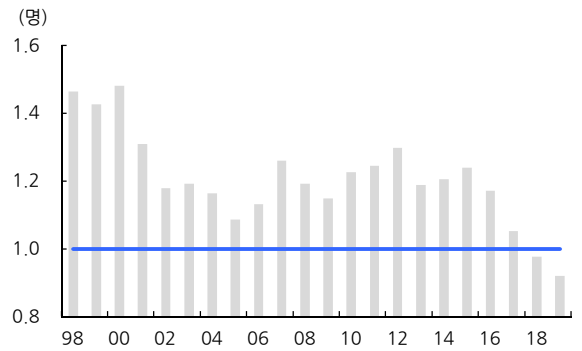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15> GDP 증가율 추이: 저성장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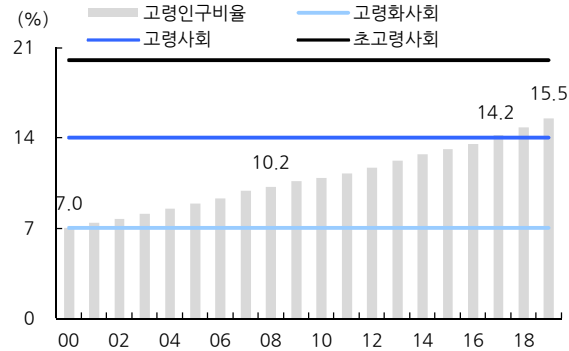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16> 합계출산율 추이: 1명 이하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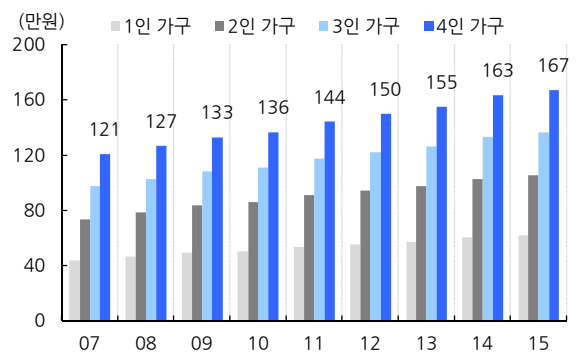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17> 고령인구 비율 추이: 고령사회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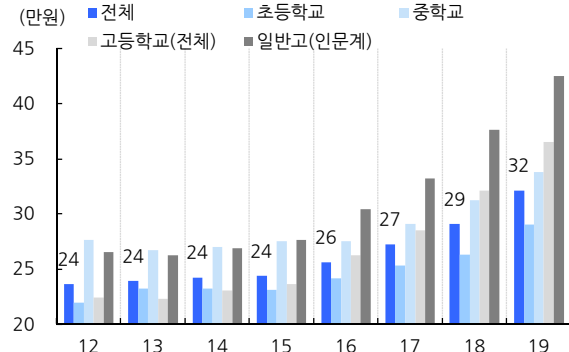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현대차증권

<그림18> 월평균 최소생활비 추이_서울시 기준



자료: 서울시, 현대차증권

<그림19>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_전국 기준



자료: 통계청, 현대차증권

안정적 수입과 노후자금 확보, 부동산 투자 열풍 등 재테크 방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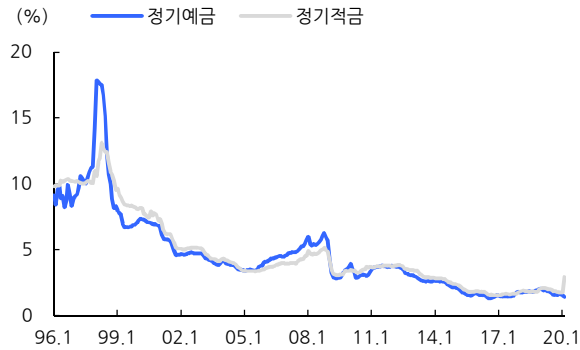
위기는 또 다른 변화를 이끌었다. 직장인들의 고민은 경제적 겨울이 다가와도 견뎌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과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과거의 재테크 방식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이 어려워졌다.

부동산 투자 열풍이 사그러들지 않았던 이유이다. 장기간 저금리에 놓이다 보니 예금, 적금 금리가 2% 이하로 내려가는 등 저축을 통한 자산 축적이 무색해졌다. 앞선 세대를 통해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학습효과 또한 크게 작용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농담을 주고 받고, 아직 경제력이 없는 중고등학생들마저 쉬는 시간에 잡담으로 부동산 가격을 주고 받는다고 할 정도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투자는커녕 내 집을 마련하는 것마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서울의 부동산 매매 가격의 중위수는 6.4억원에 달한다. 일반적인 직장에서 월급 받아 꼬박꼬박 저축해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출이 필수였기 때문에 2009년 말 734.3조원 수준이었던 가계대출은 현재 1,504.4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은퇴 후 노후생활 문제까지 불거졌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금융위기 당시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401K라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주로 가입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401K의 자산 대부분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었던 것이다. 금융위기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자산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고, 이후 금융업계에서는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가 화두로 떠올랐던 것이다.

<그림20> 정기 예금, 적금 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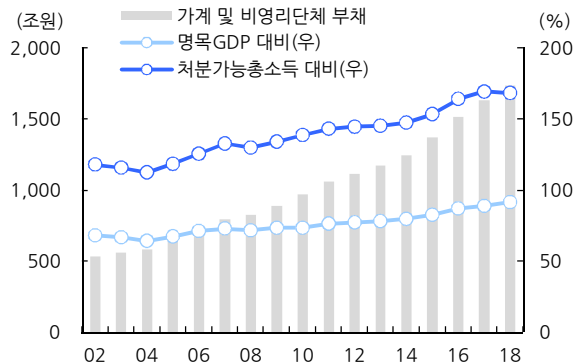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21> 대출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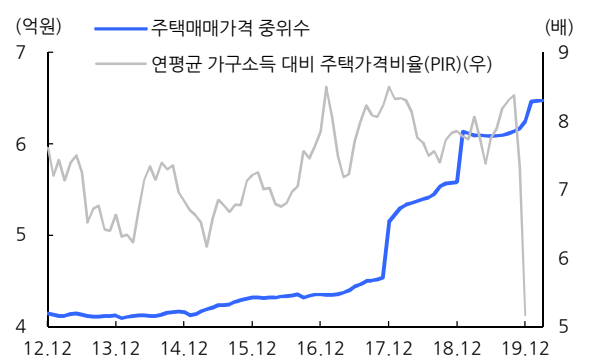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22> 부동산 투자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추세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23> 주택 매매가격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금융공사, 현대차증권

III. 동학개미운동, 주식이 매력적인 이유

4대 자금 준비의 어려움, 부동산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증시 하락은 새로운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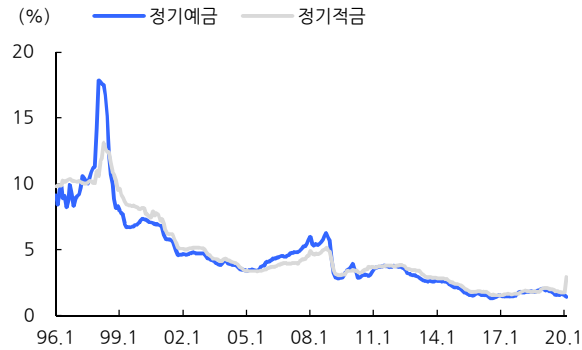
한 사람의 인생 주기에서 크게 필요한 자금은 결혼자금, 주택자금, 자녀교육비, 노후자금이 다. 몇 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또한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경제적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계 소득 확보가 중요해졌고, 개인 투자의 방향을 안전자산 투자로 변화시켰다.

결혼자금과 주택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저금리 국면의 장기화로 예금, 적금 등 저축을 통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대신 낮아진 대출금리를 활용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에 투자했다. 부동산 열풍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입은 불가피해졌다. 또한 주거 및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소득분위 역시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저금리로 결혼자금, 주택자금을 모으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소생활비와 자녀교육비가 매년 높아졌기 때문에 노후자금 준비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겠지만, 문제는 기대할 수 있는 월 수령액이 최소생활비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90%가 월 수령액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은퇴 후 안정적인 가계 소득을 위해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졌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타 투자자산 등으로 배분하는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가 중요해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고, 공포심리가 극대화된 증시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림24> 정기 예금, 적금 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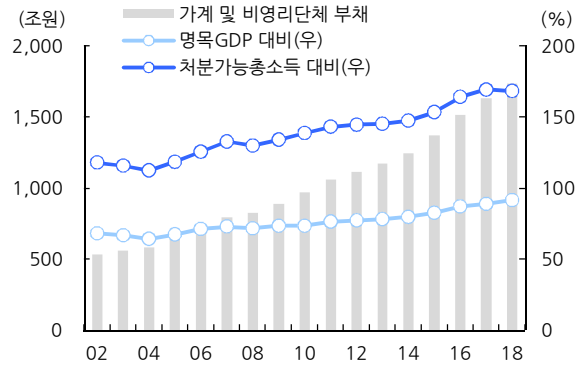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25> 대출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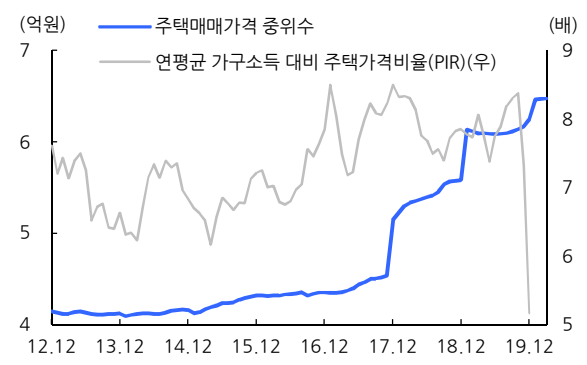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26> 부동산 투자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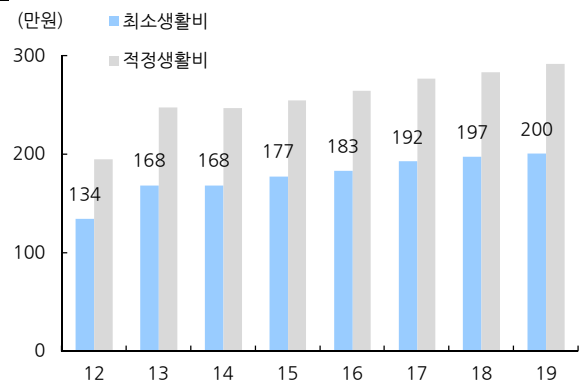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27> 주택 매매가격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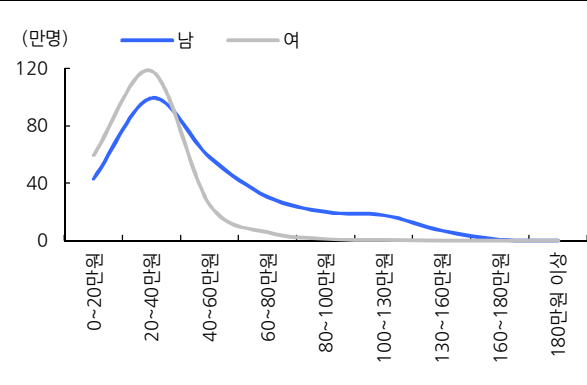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금융공사, 현대차증권

<그림28> 최소생활비 및 적정생활비(전체 평균)



자료: 통계청, 현대차증권

<그림29> 국민연금 수급자 구간별 월 수령액



자료: 국민연금공단, 현대차증권

반등국면에서의 자본이익과 장기적 관점에서 배당 등 안정적인 이익을 함께 추구

개인 순매수 상위주를 체크하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등 주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수했다. 둘째, 최근 3년간 꾸준히 배당을 시행했던 배당주를 중심으로 순매수했다. 셋째, 현재까지 이익 성장성이 양호한 편에 속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순매도 상위주는 첫째,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순매도했다. 둘째, 최근 3년간 배당을 시행하지 않았고, 올해도 배당에 대한 기대가 적은 종목이었다. 셋째, 해당 기업들이 대체로 올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어느 정도 자본차익을 얻고, 배당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우리는 동학개미운동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주가 반등국면에서 자본차익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익 등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장기투자자의 모습이다. 저금리 시대에서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배당수익률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대안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미래 가계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표1〉 최근 1개월 개인투자자 순매수(순매도) 상위종목

구분	종목 코드	종목명	업종 (WZ6)	누적 순매수 (십억원)	실적증가율_2020년			현금 배당수익률		배당 성향	주가수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2019	2020		1주	1개월	3개월
					(%)	(%)	(%)	(%)	(%)	(%)	(%)	(%)	(%)
순매수	A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3,738.3	6.0	32.1	32.8	2.5	3.2	44.7	1.8	-13.8	-12.3
	A005380	현대차	자동차	619.0	1.1	22.7	22.9	3.3	4.8	35.4	4.0	-19.6	-23.5
	A006400	삼성SDI	IT가전	486.0	13.1	62.5	106.3	0.4	0.4	18.8	-1.8	-24.2	4.4
	A051910	LG화학	화학	432.1	14.9	42.6	130.9	0.6	1.1	49.0	-2.2	-25.9	-3.4
	A000660	SK하이닉스	반도체	360.8	20.9	156.2	161.9	1.1	1.5	34.0	-0.7	-10.3	-11.9
	A096770	SK이노베이션	에너지	212.6	-15.8	-71.3	흑자전환	2.0	3.4	적자	9.6	-12.6	-36.2
	A055550	신한지주	은행	180.8	n/a	-6.3	-5.7	4.3	6.6	26.0	-0.6	-14.3	-35.0
	A015760	한국전력	유틸리티	160.3	-0.3	흑자전환	흑자전환	n/a	1.9	n/a	1.1	-9.2	-30.6
	A096530	씨젠	건강관리	159.4	31.3	70.8	15.7	0.3	n/a	9.8	-21.2	97.1	215.6
	A000270	기아차	자동차	142.5	3.0	5.6	12.8	2.6	4.4	25.2	7.4	-22.7	-36.0
순매도	A068270	셀트리온	건강관리	-238.7	41.4	66.1	70.4	n/a	n/a	n/a	13.0	17.8	20.8
	A251270	넷마블	소프트웨어	-119.6	13.3	43.4	74.3	n/a	0.1	n/a	3.5	4.7	10.3
	A028300	에이치엘비	조선	-112.5	n/a	n/a	n/a	n/a	n/a	0.0	16.9	13.5	-5.0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건강관리	-104.4	33.5	114.2	17.7	n/a	n/a	n/a	6.0	-2.9	15.8
	A180640	한진칼	운송	-96.8	7.3	흑자전환	흑자전환	0.6	0.4	적자	-5.9	-1.1	79.0
	A017800	현대엘리베이	기계	-55.2	-12.2	-24.0	28.7	1.3	1.6	50.5	6.7	-2.8	-14.3
	A263750	펄어비스	소프트웨어	-49.0	2.8	12.6	-4.0	n/a	n/a	n/a	13.2	11.3	9.5
	A218410	RFHIC	IT하드웨어	-42.5	86.4	134.7	89.5	0.5	0.5	23.9	10.9	30.3	23.8
	A032500	케이엠더블유	IT하드웨어	-40.8	45.3	49.4	55.0	n/a	n/a	n/a	16.3	13.4	5.8
	A067630	에이치엘비생명과학	건강관리	-36.2	n/a	n/a	n/a	n/a	n/a	n/a	12.0	3.1	-19.5

자료: Wisefn, 현대차증권

〈표2〉 최근 3개월 개인투자자 순매수(순매도) 상위종목

구분	종목 코드	종목명	업종 (WZ6)	누적 순매수 (십억원)	실적증가율_2020년			현금 배당수익률		배당 성향	주가수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2019	2020		1주	1개월	3개월
					(%)	(%)	(%)	(%)	(%)	(%)	(%)	(%)	(%)
순매수	A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7,962.3	6.0	32.1	32.8	2.5	3.2	44.7	1.8	-13.8	-12.3
	A000660	SK하이닉스	반도체	1,067.8	20.9	156.2	161.9	1.1	1.5	34.0	-0.7	-10.3	-11.9
	A005380	현대차	자동차	692.4	1.1	22.7	22.9	3.3	4.8	35.4	4.0	-19.6	-23.5
	A015760	한국전력	유틸리티	509.2	-0.3	흑자전환	흑자전환	n/a	1.9	n/a	1.1	-9.2	-30.6
	A055550	신한지주	은행	497.8	n/a	-6.3	-5.7	4.3	6.6	26.0	-0.6	-14.3	-35.0
	A006400	삼성SDI	IT가전	474.3	13.1	62.5	106.3	0.4	0.4	18.8	-1.8	-24.2	4.4
	A096770	SK이노베이션	에너지	464.8	-15.8	-71.3	흑자전환	2.0	3.4	적자	9.6	-12.6	-36.2
	A000270	기아차	자동차	346.3	3.0	5.6	12.8	2.6	4.4	25.2	7.4	-22.7	-36.0
	A005490	POSCO	철강	330.8	-2.3	-15.3	0.6	4.2	6.0	43.7	0.6	-16.2	-30.3
	A096530	씨젠	건강관리	316.1	31.3	70.8	15.7	0.3	n/a	9.8	-21.2	97.1	215.6
순매도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건강관리	-350.3	33.5	114.2	17.7	n/a	n/a	n/a	6.0	-2.9	15.8
	A068270	셀트리온	건강관리	-260.6	41.4	66.1	70.4	n/a	n/a	n/a	13.0	17.8	20.8
	A180640	한진칼	운송	-249.3	7.3	흑자전환	흑자전환	0.6	0.4	적자	-5.9	-1.1	79.0
	A251270	넷마블	소프트웨어	-115.4	13.3	43.4	74.3	n/a	0.1	n/a	3.5	4.7	10.3
	A091990	셀트리온헬스케어	건강관리	-89.6	57.4	180.0	187.3	n/a	0.01	n/a	22.3	24.9	69.0
	A017800	현대엘리베이터	기계	-68.8	-12.2	-24.0	28.7	1.3	1.6	50.5	6.7	-2.8	-14.3
	A060250	NHN한국사이버결제	소프트웨어	-58.6	19.1	24.9	30.6	1.0	0.5	20.3	18.8	29.0	73.9
	A196170	알테오젠	건강관리	-57.9	-26.8	적자지속	적자지속	n/a	n/a	n/a	8.3	-10.7	32.4
	A000080	하이트진로	필수소비재	-50.2	9.1	85.7	흑자전환	2.4	2.2	적자	14.1	0.9	3.0
	A263750	펄어비스	소프트웨어	-46.3	2.8	12.6	-4.0	n/a	n/a	n/a	13.2	11.3	9.5

자료: Wisefn, 현대차증권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정책 또한 동학개미운동에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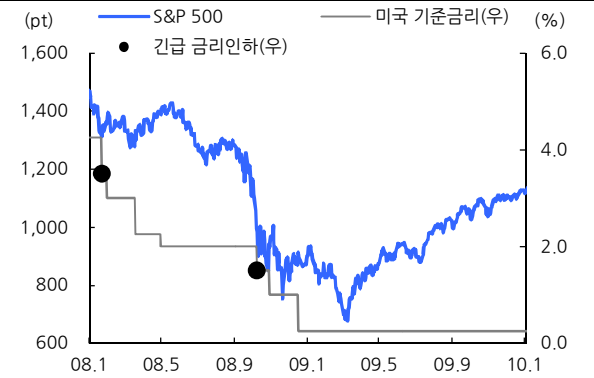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신용경색 문제가 대두되면서 글로벌 주요국은 즉각적인 정책 대응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갈 경우 극단적인 공포심리와 리스크 회피 때문에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돌아가보자. 2008년 9월 15일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빠른 속도로 부실화되면서 AIG가 파산위기에 몰렸다. 이에 연준은 9월 17일 연방준비제도법 제 13조 3항에 근거해 AIG에 850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을 발표했다. 그리고 10월 8일 기준금리를 50bp 긴급 인하했고, 장기금리 축소를 위해 장기 국채 및 주택 담보부 증권을 매입하는 대규모 자산매입(Large Scale Asset Purchase)을 통해 제 1차 양적완화(QE)를 시행했다.

당시 한국은행 또한 10월 27일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고 75bp 인하한 것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2.00%까지 인하했다. 또한 채권시장 안정펀드, 은행자본 확충펀드 등을 통해 2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정부 또한 비상경제정부체제를 선포하고, 재정지출 확대 및 대규모 추경 편성,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화 스왑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고 미국과 통화스왑 체결, 1조 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 RP 무제한 매입 등 한국판 양적완화에 나섰다. 정부 또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채안펀드(20조원), 증안펀드(10.7조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동학개미운동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30> 미 연준_2008년 10월 8일 50bp 긴급 인하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31> 한은_2008년 10월 27일 75bp 긴급 인하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3> 과거 위기 시기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방안

시기	주요 정책	세부 내역
외환위기 (97~99)	대기업, 재벌 지배구조 구조조정 부실기업 정리, 구조조정 공공근로사업 실시 금융부문 구조개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재정 긴축정책	-기업경영 투명성 정책 도입,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대기업 간 사업교환(빅딜), 회사정리(법정관리) 및 기업개선작업 -실직자 공공단기일자리 제공 및 정부지원 인턴 제도 실시 -부실채권 정리 목적 자산관리공사 설립 및 금융감독기구 정비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한시적 생활보호, 생업자금 융자 대책 -IMF의 권고로 통화, 재정긴축으로 환율절하 억제
금융위기 (08~10)	비상경제정부체제 선포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및 채권만기 연장 재정지출 확대 및 추경 편성 금융시장 안정기금, 구조조정 기금 조성 외평채 발행 및 정부자금보증 정책 시행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 협정 체결	-09년 1월 비상사태 선포 이후 매주 대책회의의 12월 6일까지 진행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 및 중소기업 채권만기 1년 연장 -08년 11월 추경으로 10조원 증액, 09년 4월 28조원 추경 편성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및 구조조정기금 40조원 설치 -30억달러 외평채 발행 및 대형은행의 대외채무 1,000억달러 보증 -3국 중앙은행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
코로나19 (20~)	취약계층 지원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채권시장/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지급 기업어음, 단기사채, CP매입 활성화 소상공인, 기업 대상 초저금리 금융지원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50조원+a, 2차에서는 100조원+a로 확대 -채안펀드 20조원 규모, 증안펀드 10조 7천억원 규모 조성 -최초 선정기준 가구소득 70% 이하. 이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채안펀드 조성 전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3조 9천억원 회사채 매입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일부 시중은행에 대출 신청 가능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현대차증권

<표4> 과거 위기 시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대응방안

시기	주요 정책	세부 내역
외환위기 (97~99)	원화 절하를 막기 위한 통화 긴축정책 금융시장 안정펀드 조성	-IMF 권고로 긴축정책 시행. 유동성 공급 제한 및 고금리 유지 -10.8조원 규모 기금 은행, 증권사, 증권회사에 지원
금융위기 (08~10)	한국은행의 대대적 기준금리 인하 채권시장 안정펀드, 은행자본 확충펀드 장기, 비정례 RP매입, 총액한도대출 확대	-각국 중앙은행 금리인하에 맞춰 1년간 6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기준금리 5.25%→2.00%로 325bp 인하 -2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7.7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코로나19 (20~)	기준금리 인하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한국은행 한-미 통화스왑 체결 RP 무제한 매입, “한국판 양적완화” 국고채 단순매입	-3월 17일 12년 만에 50bp 대폭 인하 (1.25%→0.75%) -국내은행 40%→50%, 외국은행지점 200%→250% -미 연준, 한국은행과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계약 체결 -3월 26일, 4월부터 3개월 간 무제한 RP 매입으로 유동성 공급 선언 -3월 20일 국고채 만기 3, 5, 10년물 1조 5천억원 규모 매입

자료: 언론사,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IV. 투자유망주 및 인컴(Income) ETF 제안

동학개미운동은 일확천금이 아닌 사회 구조의 변화에 맞춘 적절한 주식 선택에 의의

과거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및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4대 자금을 모으기 위한 재테크 방식이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포심리가 극대화된 증시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반등국면에서의 자본이익과 장기적 관점에서 배당 등 안정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것을 동학개미운동이라 부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다. 옛 질서를 부정했지만, 새 질서를 제시하지 못했고, 반외세 운동이었지만 힘이 부족했던 탓에 오히려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훗날 갑오개혁, 의병운동을 통한 구국 무장 투쟁 활성화, 3·1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학개미운동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경험적으로 실패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토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한층 성숙해졌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지난날 실패했던 일확천금이 아닌 사회 구조의 변화에 맞춘 적절한 주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시도를 통해 위험자산인 주식이 미래 가계 소득 안정화를 위한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학개미운동은 충분한 소득을 거둔 것이라 생각한다.

동학개미운동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써 미래 가계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될 만한 투자유망주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동학개미운동의 컨셉에 맞는 이익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배당성장주다. 둘째, 안정적인 이자소득과 현금흐름을 위해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인컴(Income) ETF를 준비했다.

이익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배당성장주

필자는 먼저 이익 성장성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배당성장주를 제안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WMI 500 유니버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연간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 개수가 2개 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했다. 둘째, 최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빈번함에 따라 관리종목 등은 제외했다. 셋째, 업종(WI 26) 기준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넷째, 배당성장주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을 시행했으며, 매년 배당이 늘어나는 종목을 선별했다. 배당수익률은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를 기준으로 했다. 다섯째,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 연간 실적이 증가하면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가진 기업을 선별하고자 했다. ROE, ROIC,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순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퀄리티 팩터를 사용했다.

〈표5〉의 조건을 사용해 선별한 이익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고배당주 11종목을 〈표6〉에 제시했다.

〈표5〉 팩터 목록

유형지표	팩터	설명
투자대상	유니버스 관리종목 제외	WMI 5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관리종목, 투자유의, 거래정지 종목 제외
Price Momentum	수익률_1M 수익률_3M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Growth	Sales_FY1_YoY_growth OP_FY1_YoY_growth NI_FY1_YoY_growth	2020년에 대한 매출액 전망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종목 2020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종목 2020년에 대한 순이익(지배) 전망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종목
Quality	ROE_12M Fwd ROIC_FY0 OPM_FY0 OPM_FY1 NPM_FY0 NPM_FY1 순부채비율_FQ0 이자보상배율_FQ0 Current Ratio_FQ0 배당성장_3Y	12개월 선행 ROE 전망치가 높은 종목 직전 연도의 ROIC(투자자본수익률) 전망치가 높은 종목 직전 연도의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높은 종목 당해 연도의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높은 종목 직전 연도의 순이익률 전망치가 높은 종목 당해 연도의 순이익률 전망치가 높은 종목 최근 분기 기준 순부채비율이 낮은 종목 최근 분기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높은 종목 최근 분기 기준 유동비율이 높은 종목 과거 3년 평균 현금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
Dividend	배당수익률_3Y 배당수익률_FY1 배당성장_3Y	과거 3년 평균 현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 당해 연도에 대한 예상 현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 과거 3년간 매년 현금 배당액이 증가했던 종목

자료: 현대차증권

<표6> 이익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배당성장주 제안

종목 코드	종목명	업종 (WZ6)	시가 총액	실적증가율			Dividend			Quality				Price
				2020년			배당수익률		배당 성향	ROE	ROIC	순부채 비율	유동 비율	수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2019	2020	2019	12MF	2019	2019	2019	1개월
				(십억원)	(%)	(%)	(%)	(%)	(%)	(%)	(%)	(%)	(%)	(%)
A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290,728	6.0	32.1	32.8	2.5	3.2	44.7	11.3	12.8	-34.4	284.4	-13.8
A033780	KT&G	필수소비재	10,462	7.2	9.0	8.9	4.7	5.9	53.7	11.5	21.7	-27.0	401.1	-7.2
A012750	에스원	상사, 자본재	3,184	5.3	10.6	11.0	2.7	3.0	57.6	10.4	17.0	-13.1	190.9	-2.2
A030000	제일기획	미디어, 교육	1,967	5.5	7.3	10.5	3.4	5.1	60.2	13.3	23.0	-34.5	161.2	-12.5
A056190	에스에프에이	기계	1,160	19.6	19.3	32.6	2.3	3.8	26.8	16.2	21.4	-3.0	165.1	-17.4
A214320	이노션	미디어, 교육	1,070	16.4	16.8	24.5	2.1	3.4	40.8	11.0	29.3	-59.6	147.8	-16.7
A108320	실리콘웍스	디스플레이	481	8.1	47.7	58.3	2.1	2.8	35.0	11.9	14.0	-42.4	358.5	-16.6
A095610	테스	반도체	388	45.9	310.9	302.1	1.2	2.0	59.0	15.8	10.8	-46.1	592.0	-19.6
A086390	유니테스트	반도체	249	9.2	28.6	24.3	1.7	3.0	19.9	18.6	33.0	-45.7	790.2	-23.4
A092730	네오팜	화장품, 의류	234	12.2	10.0	2.4	1.6	3.2	30.5	16.0	94.0	-76.5	792.5	-15.2
A192440	슈퍼켄코리아	IT하드웨어	214	16.1	25.7	16.3	2.6	4.2	19.4	13.0	26.4	-33.3	516.0	-25.4

자료: Wisefn, 현대차증권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인컴(Income) ETF: 회사채, 고배당주, REITs, 인프라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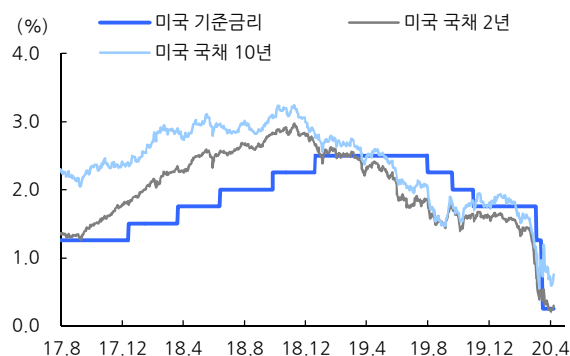
다음으로 미국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컴(Income) ETF를 제안하고자 한다. 인컴(Income) ETF는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배당과 같은 인컴 배분에 따른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시도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인컴(Income)의 종류에는 고배당주, 채권 외에도 리츠(REITs), 인프라 투자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채권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투자가능 등급 회사채가 매력적이다. 코로나19로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크게 낮아졌다. 미국의 경우 2년 0.2937%, 10년 0.7597%로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미 강력한 재정정책을 사용한 상황에서 금리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반면, 신용경색 우려가 부각되며 크레딧 스프레드가 크게 확장됐기 때문에 회사채의 경우 상당히 매력적이다. 다만, 신용경색 우려를 고려해 리스크가 크지 않은 IG(투자등급 회사채, S&P 기준 BBB- 이상) 회사채 ETF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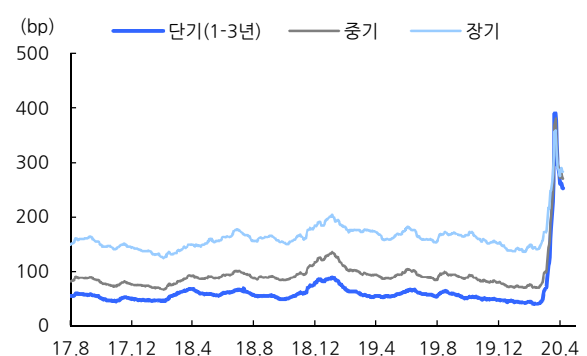
따라서 미국과 한국 시장에 상장된 고배당주, IG(투자등급) 회사채, REITs 및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ETF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ETF를 <표7>에 제시했다.

<그림32> 미국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33> 미국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QUANTITATIVE ANALYSIS

〈표7〉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인컴(Income) ETF 제안: 회사채, 고배당주, REITs, 인프라투자

상장 국가	투자 국가	투자 목적	티커	ETF	통화	순자산 총액	3개월 거래량	총수익		배당 수익률	비용 비율
								1주	1개월		
								(기준통화,억)	(천주,일평균)		
미국	미국	고배당	VYM	VANGUARD HIGH DVD YIELD ETF	USD	243.3	2,612.6	1.3	-12.0	3.8	0.06
	미국	고배당	SPHD	INVESCO S&P 500 HIGH DIVIDEN	USD	24.2	1,564.2	-2.0	-21.1	6.1	0.30
	미국	리츠	SCHH	SCHWAB US REIT ETF	USD	45.2	1,781.3	-3.5	-25.9	4.1	0.07
	글로벌	리츠	REET	ISHARES GLOBAL REIT ETF	USD	17.2	983.2	-4.7	-29.1	7.9	0.14
	글로벌	인프라	IGF	ISHARES GLOBAL INFRASTRUCTUR	USD	27.7	660.2	-1.5	-24.3	4.6	0.46
	미국	회사채_IG	LQD	ISHARES IBOXX INVESTMENT GRA	USD	398.7	18,820.0	-0.1	-7.8	3.3	0.15
	미국	회사채_IG	VCSH	VANGUARD S/T CORP BOND ETF	USD	226.6	4,538.5	0.1	-4.0	2.9	0.05
	미국	회사채_IG	VCIT	VANGUARD INT-TERM CORPORATE	USD	258.3	3,995.6	0.8	-7.7	3.5	0.05
	글로벌	금	IAU	ISHARES GOLD TRUST	USD	208.1	29,368.1	2.9	-0.4	n/a	0.25
한국	한국	고배당	161510	HANWHA ARIRANG HIGH DIVIDEND	KRW	2,582.5	135.7	2.7	-15.6	6.3	0.28
	한국	고배당	279530	SAMSUNG KODEX HIGH DVD ETF	KRW	591.3	30.1	5.9	-12.8	5.8	0.36
	미국	리츠	182480	TIGER SYNTH MSCI US REIT ETF	KRW	885.7	31.6	-4.6	-27.6	4.6	0.30
	한국	인프라	329200	MIRAE TIGER RE INFRA DV ETF	KRW	1,166.9	550.8	1.5	-10.8	0.2	0.32
	한국	회사채_IG	136340	KB KBSTAR CREDIT BOND SECURI	KRW	730.9	4.7	0.0	-0.6	1.6	0.18
	글로벌	금	132030	SAMSUNG KODEX GOLD FUTURES	KRW	1,248.3	437.3	0.3	-2.3	n/a	0.75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Appendix. 인컴(Income) ETF 포트폴리오

〈표8〉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미국	미국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VYM	Large-cap	FTSE High Dividend Yield Total Return Index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일평균)	통화	비용(%)
2006-11-16		24,334	2,612,561	USD	0.06
ETF설명		<p>벵가드 하이 디비던드 일드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는 미국에 설립된 상장지수 펀드. 동 펀드는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배당을 제공하는 회사의 보통주로 구성된 FTSE 고배당 수익률 지수 실적을 추종하는 것이다.</p>	차트(최근 2년)	<p>(달러)</p> <p>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p>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9〉 Invesco S&P 500 High Dividend Low Volatility ETF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미국	미국	Invesco S&P 500 High Dividend Low Volatility ETF	SPHD	Large-cap	S&P 500 Low Volatility High Dividend Index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일평균)	통화	비용(%)
2012-10-18		2,425	1,564,232	USD	0.30
ETF설명		<p>S&P500 로우 볼러틸리티 하이 디비던드 지수를 추종하며 미국 중대형주를 보유하고 있다. 동 펀드의 투자는 S&P500에서 75개의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 주식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가진 50개의 종목으로 좁힌 후 주식 배당 수익률로 가중한다.</p>	차트(최근 2년)	<p>(달러)</p> <p>Invesco S&P 500 High Dividend Low Volatility ETF</p>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10> Schwab US REIT ETF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글로벌	미국	Schwab US REIT ETF	SCHH	Multi-cap	Dow Jones US Select REIT Total Return Index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일평균)	통화	비용(%)
2011-01-13		4,521	1,781,264	USD	0.07
ETF설명	슈왁 U.S. REIT ETF(Schwab US REIT ETF)는 미국에 설립된 상장지수 펀드. 동 펀드는 주로 다우존스 US 셀렉트 REIT 지수의 가격 및 수익률에 상응하는 투자결과를 추구한다.		차트(최근 2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11> iShares Global REIT ETF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글로벌	미국	iShares Global REIT ETF	REET	Multi-cap	FTSE EPRA Nareit Global REITs Net Tax Index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일평균)	통화	비용(%)
2006-11-16		24,334	2,612,561	USD	0.06
ETF설명	아이셰어즈 글로벌 리츠 ETF(iShares Global REIT ETF)는 미국에 설립된 상장지수 펀드. 동 펀드는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에서의 글로벌 부동산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의 투자 결과를 추적하고 있다.		차트(최근 2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12〉 iShares Global Infrastructure ETF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글로벌	미국	iShares Global Infrastructure ETF	IGF	Large-cap	S&P Glb Infr Net Total Return Index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 일평균)	통화	비용(%)
2007-12-12		2,768	660,183	USD	0.46
ETF설명	<p>동 펀드는 S&P 글로벌 인프라 지수의 운용실적을 추종한다. 동 ETF는 최대 할당이 북미, 서유럽, 아시아태평양에 분할된 에너지, 공산업 및 유틸리티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총액 방식으로 주식 보유 가중치를 결정한다.</p>		차트(최근 2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13〉 iShares iBoxx \$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미국	미국	iShares iBoxx \$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	LQD	회사채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 일평균)	통화	비용(%)
2002-07-26		39,874	18,820,040	USD	0.15
ETF설명	<p>동 ETF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 투자등급 회사채으로 구성된 지수의 투자 결과를 추적 하려고 하고 있다.</p>		차트(최근 2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14> Vanguard Short-Term Corporate Bond ETF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유럽	미국	Vanguard Short-Term Corporate Bond ETF	VCSH	회사채	Bloomberg Barclays US Corporate 1-5 years Total Return Index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일평균)	통화	비용(%)
2009-11-23		22,659	4,538,541	USD	0.05
ETF설명		<p>뱅크드 숏텀 코퍼릿본드 ETF(Vanguard Short-Term Corporate Bond ETF)는 미국에 설립된 상장지수 펀드. 동 펀드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캐피털 US 1-5년 회사채 지수의 운용실적을 추적한다.</p>	차트(최근 2년)	<p>(달러)</p> <p>Vanguard Short-Term Corporate Bond ETF</p>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15>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미국	미국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VCIT	회사채	Bloomberg Barclays US Credit Corp 5-10Y Total Return Index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일평균)	통화	비용(%)
2009-11-23		25,829	3,995,584	USD	0.05
ETF설명		<p>뱅크드 인터미디에트 텀 코퍼릿 본드 ETF(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는 미국에 설립된 상장지수 펀드. 동 펀드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지수의 운용 실적 추적을 추구하고 있다..</p>	차트(최근 2년)	<p>(달러)</p> <p>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p>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16〉 ISHARES GOLD TRUST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글로벌	미국	ISHARES GOLD TRUST	IAU	Multi-cap	LBMA Gold Price PM USD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 일평균)	통화	비용(%)
2005-01-28		20,805	29,368,094	USD	0.25
ETF설명	<p>동 펀드는 순자산에 대한 단 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나타내는 주식을 발행한다. 동 신탁의 자산은 주로 신탁을 대신하는 수탁기관이 보유한 금으로 구성되어 있다.</p>		차트(최근 2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17〉 HANWHA ARIRANG HIGH DIVIDEND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글로벌	한국	HANWHA ARIRANG HIGH DIVIDEND	161510	Multi-cap	FnGuide Inc Dividend Stocks Index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 일평균)	통화	비용(%)
2012-08-29		258,247	135,720	KRW	0.17
ETF설명	<p>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을 에프엔가이드가 산출하여 공표하는 추적대상지수인 에프엔가이드 배당주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p>		차트(최근 2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18> Samsung KODEX High Dividend ETF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한국	한국	Samsung KODEX High Dividend ETF	279530	Multi-cap	FnGuide High Dividend Plus Ind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일평균)	통화	비용(%)
2017-10-17		59,133	30,110	KRW	0.25
ETF설명		삼성 KODEX 고배당증권상장 지수투자신탁(주식)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장지수펀드이다. 이 펀드의 목적은 FnGuide High Dividend Plus Index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이다.	차트(최근 2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19> TIGER SYNTH MSCI US REIT ETF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미국	한국	TIGER SYNTH MSCI US REIT ETF	139260	부동산 파생	MSCI US REIT INDEX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일평균)	통화	비용(%)
2013-10-10		88,572	31,574	KRW	0.15
ETF설명		이 투자신탁은 미국 리츠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 에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 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MSCI US REIT지수 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한다	차트(최근 2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20〉 MIRAE TIGER Real Estate INFRA DIVIDEND ETF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한국	한국	MIRAE TIGER Real Estate INFRA DIVIDEND ETF	329200	Multi-cap	FnGuide Real Estate Infrastructure High Dividend Index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주, 일평균)	통화	비용(%)
2019-07-19		116,686	550,831	KRW	0.23
ETF설명		이 펀드는 FnGuide 부동산인프라고배당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트(최근 2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21〉 KB KBSTAR CREDIT BOND SECURITY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한국	한국	KB KBSTAR CREDIT BOND SECURITY	136340	Large Growth	KOBI Credit Bond Index Total Return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주, 일평균)	통화	비용(%)
2011-04-15		73,091	4,736	KRW	0.12
ETF설명		펀드의 목적은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KIS채권평가가 산출 및 공표하는 "KOBI Credit Index(총수익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로,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트(최근 2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22> SAMSUNG KODEX GOLD FUTURES

투자대상	상장시장	ETF명	티커	스타일	기초지수
글로벌	한국	SAMSUNG KODEX GOLD FUTURES	132030	Large-cap	S&P GSCI Gold Total Return
설정일		AUM(기준통화, 백만)	3개월거래량 (주, 일평균)	통화	비용(%)
2010-10-01		124,832	437,338	KRW	0.50
ETF설명		펀드의 목적은 COMEX에서 거래되는 원자재선물 중에서 금선물 가격을 기초로하는 S&P GSCI Gold Index Total Return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다.	차트(최근 2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 본 조사항목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